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패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존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573-6706
COMMUNITY PAIN MEDICINE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회(Julie) 임 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 하 탄 (212) 947-8382(B) 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판노)지과 글로리아 지과대학교 졸업 알버트 스트(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문비) 베이사이드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밴,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ADSG 치과 50세 이상 초진 무료 7 Sylvan Ave. Englewood Cliffs 201-302-0700 손영준 아브라함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Jull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소스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제1697호

2012, 1, 15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35-42)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434-7084

Fax : (718) 405-0053



연중 제2주일

ㄹ 입당송

(시편 66(65),4)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 노래하게 하소서.

<대영광송>

ㄹ 제1독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3,3ㄴ-10,19)

그 무렵 3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4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5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6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7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3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5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10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ㄴ.8ㄴ-9,10(◎ 8ㄴ과 9ㄱ))

◎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1.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그분은 나에게 몸을 숙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2.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3.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4.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을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ㄹ 제2독서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6,13ㄴ-15ㄱ.17-20)

형제 여러분, 13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14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17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18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20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요한 1,41.17ㄴ)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네.

ㄹ 복 음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5-42)

그때에 35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님께서 돌아서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빠, 어니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42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시편 23(22),5)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 8 8시	김 철	이 윤형	윤 기애	정 태영
11시	이 희양	성 기용	채 영진	윤 정숙
1/15 8시	김 철중	함 봉국	함 경옥	김 미수
11시	최 일환	이 경태	이 은미	최 금연

복 사 : 윤 정훈&이 제영 이 다운&김 현진
 봉헌자 : 로철진&유근천 가족 다음주 : 김여철&윤구식 가족
 헌금봉사 : 셋 별 Pr 다음주 : 자비의 모후 Pr
 운전봉사 : 윤 광석 다음주 : 박 지현
 본당 뱅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꾸르실료 신년교례회도움주신분(감사미사) : 본당울뜨레야봉헌
 최안나[광자](생미사) : 셋별 Pr, 김마르타[미애], 박레지나[효순],
 김리디아[총자], 장솔리나, 이아네스[인숙]
 에어로빅 팀 일동봉헌
 오제인[은자](생미사) : 신아네스[희정] 봉헌
 장현수(생미사) : 부모님 봉헌
 김프란치스코[윤환](생미사) : 윤베네딕도 가족봉헌
 아버지(위령미사) : 김논나[민식] 봉헌
 정원일(연미사) : 김리디아[현정] 봉헌
 양가 부모님(연미사) : 김맥시미언[태운] 봉헌
 부모님(연미사) : 김요한[동현] 가족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연미사) : 한프란치스카[희자] 봉헌
 연령회 에서봉헌(연미사) : 김봉선, 홍루비나[신도], 송요셉[병만],
 김루시아[정자], 허스테파노[문호],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

성가

입당 : 언제나 주님과 함께 (성가 32)
 봉헌 :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가 218)
 성체 : 구원을 위한 희생 (성가 183)
 파견 : 주 하느님 크시 도다 (성가 2)



교회 소식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새 예비자 교리반이 오늘(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 성지순례 소식

올해 에집트 사태로 취소된 제1코스(이스라엘, 에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2012년 1월 31일-2월11일 동안에 순례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리랑 여행사(212-563- 335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버지 피정

아버지 피정이 “좋은 남자”란 주제로 오늘(주일) 메리놀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많은 은총 받고 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민족의 날 행사

대건회 주최 민족의 날(구정) 행사가 다음주22일(주일) 11시미사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혼배 갱신식

2월5일(주일)에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신분, 결혼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되시는분 그 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반지)

(6) 확대 사목회의

확대 사목회의가 이번 주18일(수) 저녁미사 후 친 교실에서 있습니다. 단체장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2012년 교구청(Stewardship Appeal)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의 한달 분)

(8) 본당 모임

- 뉴저지구역회가 21일(토) 저녁7시 김 태복(베드로) (201)248-4107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연례회 모임이 29일(주일) 12시30분 센타102호실에서 있습니다.
- 신자주소록 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이나 빠지신 분은 본당 뒤편에 있는 용지에 적어주시면 새 주소록에 실어 드립니다.
-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 [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이번달(1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다음달 (2월달)은 뉴저지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2,255.00 말구유 헌금 : \$68.00 성물 : \$877.00

교 무 금 : \$3,750.00 교육헌금: \$6,975.00

2011년 남혁우(완) 황인서(완) 서균덕(완) 정경모(완) 지창욱(1-2)

2012년 남혁우(1) 윤용태(1) 신현광(1) 안길원(1-2) 이상식(1)

김신자(1) 김원자(1-2) 박용선(1-2) 김형남(1-2) 김종철(1-2)

박경순(1) 김경심(1) 진경란(1) 신동우(1) 김부균(1-6)

김연옥(1) 김관희(1) 현영애(1-2) 황보세훈(1-6) 김옥연(1-2)

박은영(1)

2012 (Stewardship Appeal) : \$ 210.00 누계 : \$ 260.00

남혁우 윤용태 임석태

삶은 투쟁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이곳 동부에 때 아닌 폭설이 내려서 교통이 마비가 되고, 곳곳에 전기가 끊겨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 그 때 나는 그렇지 않아도 겨울이 돌아오면 눈이 많이 내릴까봐 지레 걱정을 하곤하는데 금년 겨울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려고 이렇게 겨울이 닥치기도 전에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서 겨울을 보낼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후로 11월, 12월에는 날씨가 온화해서 아주 기분 좋게 잘 지냈다. 그리고 이제 1월이 오고, 대한이 소한에게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춥다는 소한이 지난주에 지나갔는데 그런 추위는 없었다. 그리고 24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이 내주 21일이고, 그리고 곧 입춘이다. 나는 달력을 보면서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년 겨울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가? 겨울에 눈도 안 오고, 춥지도 않으면 여름에 질병도 많이 돌고, 농사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이제 은근히 돌아올 여름 걱정을 한다. 그러면서 한편 내가 왜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난 10월 폭설이 내렸을 때 돌아오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까봐 그토록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온화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온화한 겨울을 보낸다고 힘든 여름을 맞게 될까봐 미리 걱정을 하다니...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마태 6,34) 하셨는데. 사실은 나에게 그저 안일한 삶이 주어지기를 원하기 보다는 실사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삶은 투쟁입니다. 이 투쟁을 받아드리십시오 하셨다. 인간의 삶이란 항상 그 무엇과 투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피할 생각하지 말고 부딪치고, 잘 견디어 나아가라는 말씀이다. 한 시인은 말하기를 불행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면 영혼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이 강해지도록 미리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온실속의 삶과 같은 안일하고, 편안한 삶이 주어지기를 항상 바라지만, 인간에게는 10월의 폭설 같은 때 아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질병이나 흉년같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키워 놓으면 이런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있지 않겠는가? 정말이지 삶은 투쟁이다. 그렇지만, 나의 영혼을 튼튼하게 키워놓으면 그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울러서 그 승리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우 몽은